



Overweight (Maintain)

반도체

Analyst 박유악

02) 3787-5063 / yuak.pak@kiwoom.com

산업 업데이트

반도체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 할 시점



코로나19 영향으로, 노트북과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음.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조립 라인의 인력 수급'과 '부품의 물류와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Q20 예상 대비 저조한 판매량 기록할 전망. 서버는 이슈가 발생된 부품의 보유 재고가 충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온라인 교육과 재택 근무 증가가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의 반도체 구매 회복 시기'를 앞당기고 있음. PC 향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3월 중순 이후, 반도체 업황의 반등 나타날 것으로 판단함.

>>>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점검

중국 춘절 기간 동안의 판매 부진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노트북과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

노트북의 경우 중국 내 '노트북 조립 라인의 인력 수급', 'PCB 기판을 포함한 부품의 생산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트북 조립 라인의 인력 복귀율은 3월 초 50% 수준에 이른 후, 3월 중순 경에는 전체의 2/3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PCB 기판을 포함한 부품 이슈의 경우, 보유재고 감안 시 향후 1~2개월 안에만 해결된다면 노트북 생산에 큰 차질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1Q20 노트북 판매량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트북 생산 업체 대부분이 성수기인 2Q20 ~ 3Q20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후반을 기점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스마트폰 역시 중국 업체들의 '조립 라인 인력 복귀'가 늦어지고 있고, '부품의 물류와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계획 대비 저조한 춘절 판매를 기록한 화웨이'와 '오프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오포와 비보',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애플'이 당분간 부품의 재고 축적에 소극적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구매 심리 약화,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5G 보조금 축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모바일 반도체의 수요 반등은 이르면 2Q20 중·후반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서버는 일부 모듈 라인 생산률에 이슈가 있지만, 업체들의 보유 재고가 충분하고 ODM 가동률도 3월초 80%에 이를 것으로 보여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온라인 교육과 재택 근무 등의 증가로 인해,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의 반도체 구매 회복 시기가 예상 대비 빨라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 PC향 반도체 수요 회복 시점이 변곡점일 것으로 판단

코로나19로 인한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서버 수요가 예상 대비 빠르게 회복되며 해당 영향을 상쇄시키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의 변곡점은 노트북을 포함한 PC 서플라이 체인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 이후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부터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을 추천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2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20%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상회)	시장대비+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하회)	시장대비-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비중확대)	시장대비+10% 이상 초과 수익 예상
Neutral(중립)	시장대비+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시장대비-10% 이상 초과 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9/01/01~2019/12/31)

매수	중립	매도
97.33%	2.00%	0.67%